



부패와 비리의 끝에서



신입직원, 기부금 횡령 사건의 한가운데 서다

지역신문사 취재기자 생활을 접고, 일 년 가까이 백수생활을 전전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였으므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우연치 않게 한 사립대학 홍보실에 직원 채용공고가 났다. 용기를 내어 지원했다.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입사지원서를 낼 때는 용기가 필요하리라던 한 선배 백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대학 직원으로 맡은 업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대학의 주요한 이슈를 발굴해 보도자료로 만드는 등 대학 홍보 업무가 내게 부여된 업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전기금을 접수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곡절은 있었지만 1년간의 수습기간은 순탄했다.

사건은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장을 받고나서 생겼다. 그 전까지는 수습기간이었으므로, 그간은 항상 보조 역할에 국한되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부사수였던 것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사수가 된 것이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다.

사립대학에서 취급하는 발전기금은 흔히 기부금으로 불리는 돈이다. 장학금으로 써 달라거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의 순수한 기부금부터, 대학과 거래하던

업체로부터의 들어오던 일명 조건부‘꺾기’성 기부금, 대학의 운영자의 눈에 들기 위한 ‘아부성’ 기부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많을 때는 연간 7억원 가까이 접수되곤 했다. 물론 서울 지역의 유수 대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다.

타 부서로 전출 발령을 받은 선임자는 후임자인 내게 발전기금이 접수되는 은행계좌를 3개월여 간 인계하지 않았다. 선임자는 그 업무를 8년 가까이 해 왔던 터라, 후임자였던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다. 일반 공직업무와 달리 사립대학의 행정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느슨한 탓도 있었다.

정직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

선임자로부터 기부금 접수 계좌를 인계받은 뒤, 나는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5년 여간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의 내역, 기부금 수입내역이 심각하게 불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었는데, 해당 기부금은 대학의 수입으로 입금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이다. 횡령이었다. 얼추 1억 원이 넘었다. 그것도 기부금이 말이다.

존경하고 믿었던 선임자의 불법적 행위를 알게 된 것이 개인적인 고민이었다면, 선임자의 불법적 행위들을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의 상급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대학 안의 상습적이고 제도적인 고민거리였다. 게다가 나는 어렵게 정규직 발령을 받은, 대학행정의 경험이 일천한 신출내기였고, 사립대학의 행정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공공연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관행처럼 만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행에 신출내기가 제동을 거는 것은, 앞으로 대학 직원으로서의 순탄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오래되고 강한 관행의 음습한 그늘 속에서 직장생활이 종료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임자의 징계와 강제 퇴사도 의미했다. 전 직장의

폐업 사태를 겪고, 이미 배고프고 눈치 보이는 백수생활을 한 번 거쳤던 나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심과 두려움의 사이에서

세 살 박이 딸아이를 끌어안고 잠든 집사람 옆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 잃은 가장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두려움의 끝에는, 작고 못난 양심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양심은 정직함을 무기로 나를 위협했다.

타인의, 대학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한 채, 부끄럽지만 안일한 직장인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지라도 떳떳한 양심적 삶을 위해, 어쩌면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무모한 선택을 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꽤 비참했다.

집사람이 용기를 주고 싶어 했다. 입에 풀칠할 걱정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고 했다. 선임자의 잘못을 묵인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개과천선하리란 보장을 어찌 하느냐, 반문했다.

직장의 다른 선배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좋을 게 없다는 투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다른 선배는 잘못을 저지른 선임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너그럽게 봐 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횡령 사례를 덮어버릴 수 있는, 신출귀몰한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선임자는 자신이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00라는 분이 있었다. 대학의 사진촬영, 영상기록, 광고물 제작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놀기 좋아하고 게으름 피기 일쑤인, 나이 지긋한 분이었다.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직원으로 생활해 온, 대학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걱정과 고민이 칼날이 되어 몸까지

피폐해 질 즈음, 이 분이 짧게 충고했다.

양심이 울리는 방향, 정직하고 행복한 삶

“너의 마음이 가는 방향, 그것이 네가 갈 길이다.”

용기를 내라는 말이었다. 고민과 걱정에 휘둘리지 말고, 양심에 맡기라는 말이었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수십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태도가 용기있는 삶의 자세라고 했다. 정직하고 행복한 삶이란, 그런 고뇌와 근심 속에서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다.

결단을 내렸다. 사건을 조사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졌다. 업무담당자가 문제제기를 한 이상, 사건을 더 이상 무마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급자들도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전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하이에나처럼 자료를 뒤지고, 제보를 했다.

별도의 감사팀이 투입됐으며, 5년여 간 총 1억 8천여만 원이 횡령된 것으로 판단했다. 선임자는 집을 팔고, 사학연금을 해약하여 횡령액을 변제하고 퇴사했다.

조사기간 동안 나는 한 달여에 걸쳐 고생을 했다. 단지 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술한 진술서와 조사서에 서명을 했다. 보통 사립대학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문제 있음을 지적한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는 없었다.

그러므로 포상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다만 다른 직원들로부터, 선임자를 퇴사케 했다는 질시와 은밀한 야유만이 등 뒤로 쏟아졌다. 그리고 사건 무마를 종용했던 상급자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은 그렇게 덮이는 듯했다.

제도화되지 못한 청렴함의 한계

그로부터 몇 년 후, 10억 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결국 1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다.

내 선임자에 의한 횡령 사건이 그저 내부적으로 덮이는데 그치지 않았더라면, 내부적인 반성과 재발방지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다시 두렵게 등 뒤를 염습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대학은, 사건을 내부적으로 덮기 위한 미봉책만을 남발했다. 사립대학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채 말이다.

청렴함이란 정직함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는 자세이며, 동시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으로 달성해야 할 최선의 덕목, 지향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청렴과 정직은 사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위한 덕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강요되는 덕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공동체 속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 덕목을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내가 겪었던 그 사례에서 대학이 철저히 반성하고, 청렴하고 정직할수록 개개인이 발전하고 공동체 전체가 부흥될 수 있음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유사 사례의 방지책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10억 원의 횡령 - 횡령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상황은 다시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렴함과 정직함을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제도화된 조치가 없는 공동체에서 횡령, 부패는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렴 세상**